

일본의 청년창업 정책



창업자의 적극적인 도전은 끊임없는 신진대사를 가져와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창업률이 폐업률을 하회하고, 특히 젊은 층의 낮은 도전정신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대학발 벤처 지원, 엔젤투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과정 운영

일본은 기업가마인드 함양과 관련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1999년부터 중·고등학교 수업에 체험·참가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그 성공사례를 해당 자치단체 및 전국으로 확산시켜 학생들에게 장래 창업을 포함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가하고 체험하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는 지식·기술집약적인 창업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대학·대학원에서의 창업교육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2009년에 '대학·대학원기업가교육추진네트워크'를 설립하였다. 동 기구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업경험을 차세대에 전수하고자 하는 기업가, 창업 관련 외부 강사 등을 네트워크화하여 특히 지역에서의 기업가마인드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발 벤처창업 지원

지식과 혁신의 창출 거점인 대학은 기업가를 양성하는 교육의 역할과 함께, 대학의 지식·기술을 실용화·사업화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의 대학은 지역 차원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 센터로서의 역할과 함께 산학협력 및 신산업창출을 위한 중추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대학발 벤처의 유형은 IPO⁹⁾를 지향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일정 수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기업가정신 함양교육을 강화함과 더불어 대학발 벤처 지원, 엔젤투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청년창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